

속 기록

- 회의명 : 제367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4. 1. 26(금) 09:30 ~ 11:00
- 장소 :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 회의장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 김미라 위 원
- 김진각 위 원
- 배은주 위 원
- 서승미 위 원
- 이훈경 위 원
- 장미진 위 원
- 장인주 위 원
- 정갑영 위 원
- 정정숙 위 원
- 정종열 위 원
- 불참위원 : 홍성태 위 원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제36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4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기본계획(안) 등 의결안건 4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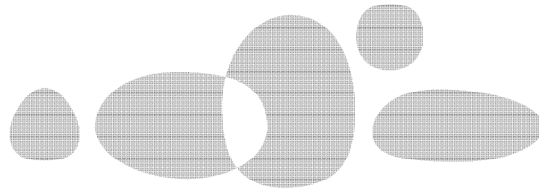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2인이 불참하시고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4쪽입니다.

전차 위원회 전체회의는 12월 27일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차수로는 제366차고요. 의결안건 7건이 상정되어서 5건이 원안의결 되었고, 2건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안건은 제1036호 2024년 문학창작실이용지원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1036호 의결안건을 보고드립니다. 회의자료 8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작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다수의 작가들에게 자유롭고 편리한 방식으로, 공유오피스 방식으로 집필실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확보된 사업예산은 총 6억이고요. 먼저 전국 단위로 이와 같은 공간과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이곳을 인근에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문인들을 공모로 선발해서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수도권 그다음에 강원, 충청, 전라, 제주, 경상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전국을 나눠서 20여 개 내외의 시설을 확보하고 연간 230여 명의 작가들이 이곳을 이용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5월까지 저희가 민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요. 최대한 6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작가들을 선발해서 늦어도 6월 말부터는 작가들이 이 공간을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과 현장과의 상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울러서 이 사업은 수혜 작가들의 창작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공유·확산할 수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약간의 보완을 거쳐 9페이지 하단과 10페이지에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지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문학 분야 예술인활동증명 통계입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도움을 구해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많은 작가들에게 최적의 여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통해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진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10페이지 참고자료라고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사진이죠? 이런 콘셉트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줌 라인 불량)

정병국 위원장 : 안 들려요.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을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의 내용은 그동안 집필공간이 있는 문학관 등에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문학관 등에 들어가면 원거리에 있거나 그곳에서 기숙해야 하는데요. 요즘 많은 작가들이 검업을 하기도 하니까 출퇴근 개념으로 필요할 때마다 가서 집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집필공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공실이 많고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박경리 토지문학관 같은 곳은 다 차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공실이 많아서 이것을 도심지에 공유사무실 형식으로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그 공유사무실을 공유 집필실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의 업무보고를 통한 현장 작가들의 요구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집필공간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공유 집필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김진각 위원 : 문학창작이라는 작업 자체가 글을 쓰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스터디카페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각 공간이 차단 될 수 있도록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칸막이를 설치해서 공간을 세밀하게 꾸밀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 부분은 아마 지역이 선정되고 장소가 선정되면 작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게 될 겁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공유오피스 공간을 원하는 작가들도 있고 개인적인 1인실 기준의 공간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다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런 공간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확보한 뒤 매칭을 통해 추진할 생각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18쪽에 여론 조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1인 창작실이 52.8%, 공유라운지가 37.5%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것은 그 수요에 따라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훈경 위원 :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별첨 문서로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지역 4~5곳만 보더라도 서울, 경기, 경상, 강원, 충청 쪽에 많은 작가가 있는데요. 상위권만 포함해도 3,000명가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30명 정도의 작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시겠다고,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지역별로 이 정도만 가도 괜찮은 건지? 그리고 추후 예산이 늘어나면 이것은 당연히 수혜를 받는 인원이나 공간을 늘리실 계획이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저희가 올해 확보한 예산은 6억 규모인데요. 그 규모에 맞게 일단 진행하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이나 수요조사가 병행되면서 조금 더 예산 증액 등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훈경 위원 : 지역별로 배분을 조금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예. 저희가 배부해 드린 그 자료는 사실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신청했을 때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지역에 대한 비율이 들어올지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 받아 보고 거기에 맞게, 공간마다 균형감 있게 좋은 조건의 공간들을 잘 확보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7호 2024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안건번호 제1037호 안건명 2024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추진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문예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는 이 사업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부 계획(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국회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저희에게 2023년 12월 21일 예산이 확정된 속에, 문예진흥기금 안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170억이 반영되어서 본 사업계획(안)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이 지역 매칭 등의 필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유로 사

전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기재부, 문화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느라 위원님들께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26페이지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사업목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인 문화 소비를 확대하고, 소비가 확대된 것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및 문화예술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도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서 지원 대상은 민법상 성년이 되는 청년(19세) 그러니까 올해는 2005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총 43만 명 중에 저희가 선착순 16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순수예술 중에 공연 및 전시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저희 문예진흥기금 10만 원, 지방비 5만 원 매칭을 통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시다시피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대중가수 콘서트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서 추진 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 문예진흥기금 160억 원 그리고 지방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온라인을 통한 공연 및 전시 티켓 예매 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 방향은 저희가 지자체 협업 그리고 예매처 협력체계 구축, 중앙관제 시스템 구축, 홍보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30페이지를 보시면, 지자체 협업의 내용들은 총 17개 시도와 문화부 협의를 통해서 접촉하고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올해 매칭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시도를 제외하고요. 대구시는 자료 작성 당시에는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대구도 매칭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매칭을 통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2개 시도의 19세 인원을 제외한 모든 청년이 15만 원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협력예매처 공모 및 지정인데요. 오늘 의결이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복수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정된 예매처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오픈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서 4월 1일 오픈을 목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매처에서는 패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각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와 2005년생이라는 출생 연도를 확인합니다. 출생 연도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는 개인정보 취급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화부에서 공시를 통해서 저희를 지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 전에는 개인정보 취급 기관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앙관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홍보는 4월 1일 이후 시행하기 때문에 2월과 3월에 집중 언론보도나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33페이지 예산계획을 봐주시시오. 전체 사업비 160억 그리고 운영비 10억입니다. 지방비는 별도인데요. 그것은 예외로 하고요. 10억 중에는 전산직 직원 1명, 일반행정직 3명 등 4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운영 및 홍보 관련해서 약 7억 7,800만 원 정도를 배정했고요. 나머지 700만 원 정도는 여비나 사업추진비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그냥 염려인데요. 다른 문화예술카드 같은 경우도 거의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연극·뮤지컬 담당이라서 되게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사실 19세에 한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마 회전문 관객이 많이 도는 뮤지컬 쪽으로 아마 대다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 1편당 많게는 7만 원에서 8만 원인데 15만 원이면 2편을 보면 끝나는 금액인데요. 이게 그 연령들한테 갔을 때 대다수가 뮤지컬로 빠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들어서요. 어떤 안전장치는

불가피하겠죠? 절대로 안 되겠죠? 그냥 염려입니다.

배은주 위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한데요. 문화누리카드도 사실 가맹점 등록을 한 곳이어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가맹점 등록 자체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예매처가 기획·제작사에게 선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누리카드처럼 공연장에서 자유롭게 결제하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결제 시스템이 좀 궁금합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이것은 일단 올해 시범사업이고요. 올해 안으로는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현재는 예매처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시중에 여러 예매처가 있는데 그중에 복수로 2개 이상, 3~4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복수로 예매처를 지정하고요. 대상자인 19세 청년이 예매처에 회원가입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관제 시스템에서 출생 연도와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 15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로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들에 대해서 결제를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하루 이틀짜리도 예매처로 등록하는 홍보와 청년들에게 사용을 촉진하는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매처가 복수로 지정되면 예매처와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은주 위원 : 예. 그러면 추가 질문은, 이게 결제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사용하는 청년들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내가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인트 결제의 내용은 우리가 모바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모바일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PC도 되어 있는데요. 회원가입을 하면 자기에게 15만 포인트가 배정되어 있다고 알려줄 것이고요. 그러면 공연을 선택하고 결제를 통해서 배정된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넘었으면 자기 자비를 통해서 결제할 수 있도록 복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배은주 위원 : 예. 그러면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사업은 사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술위원회가 그냥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의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관람의 편중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왕 순수예술에 대한 소비나 향유 쪽으로 청년층에 진입하는 세대한테 적용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 편중되지 않게 하는 방안들.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지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세종과 제주는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의 19세 청년들은 10만 원만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맞습니다. 두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형평성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세종과 제주도는 접촉을 통해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이라서 강제적인 매칭은 시도하지 못하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문화이용권처럼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문화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르 편중은 서울시가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청년 사업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는데요. 장르 편중에 대한 문제점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2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뮤지컬 관람에 대한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다른 장르로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예산 집행률이 당초 계획의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저희가 담당자에게 물어보았는데요. 큰 이유가 너무 제한하다 보니까 제한이 촉진 유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선정위원회 등을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많은 부분을 열어서 접촉 기회를 넓혀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나 문화부의 입장이라서 일단 우려 사항을 고민하면서도 차차 대책을 세우려 합니다. 다만, 올해는 많은 부분을 넓히자는 게 취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서울시 같은 경우 저도 회의에 몇 번 들어가 봤는데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문제점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문제점 하나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배포되는 문화예술카드이기 때문에 그들이 차상위계층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신청하지 않는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용률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니까 사용률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이니까 올해 해 보시고 아까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현황을 충분히 분석해서 차후 연도에는 방향성을 조금 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웰컴대학로도 그렇고 문화예술카드도 그렇고 순수예술이라고 해서 모든 장르를 포함하지만 사실 현장에서 임을 때는 다수 뮤지컬 티켓 지원사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현황을 면밀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계환 예술확산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우려하고 있어서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어차피 시범사업입니다. 해당 연령대의 대상자가 40여 만 명이 넘는데 올해는 16만 명밖에 지원 못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착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매칭도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편중이 되는지? 또 매칭된 곳과 매칭되지 않은 곳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16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정말 관심들이 많아서 풀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의 위탁사업인데 이 사업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사전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책정해 주기로 약속했었고 막판 국회 예결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위까지도 저희가 그것을 관철시켜 나갔는데 막판에, 방망이를 두들기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보니까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170억이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굉장히 항의도 했는데 이미 방망이가 두들겨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문화부의 담당자들이 장관한테도 보고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게 기관장 회의에서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장관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도 처음부터 그런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합의를 봤는데 기재부가 막판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보존을 해 달라.” 그래서 올해도 문예진흥기금이 700억 정도가 남았는데 170억이 또 나가게 되면 500억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결산심의위원회 때도 체육진흥기금에서 500억이라도 전입을 먼저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1,000억 대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해서 예결소위까지 다 통과가 되었는데 이것도 막판에 날라 간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이렇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면서 지금 정부 기재부의 기본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앞으로도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8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36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결해 달라고 하는 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일단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직원을 포함하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현행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없었는데 개정안에 직원이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포함 여부와 인원수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제 전담심의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저희는 그때 장관께서 한번 오셨고 굉장히 정책적 의지를 드러내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하는 제도와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잘 융합해서 ‘전담심의관’이라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해 보자고 했고요. 저희가 사실은 12월에 어제 논의되었던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고 자료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은 “사전 공개검증을 하자.” 그리고 구성 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전담심의관들은 2월 10일 경에 워크숍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특히 장르별 위원님들과는 같이 워크숍을 추진하면 하는 게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심의를 하자는 건가요? 말자는 건가요?

이윤희 예술창작본부장 : 아니요. 이것은 요청을 드리는 바인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제 논의된 결과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수기를 하자는 내용이고요. 우리 직원 중에서 전담심의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요. 따라서 이 안은 그대로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직원을 포함하는 건은 아니고요. 어제 급하게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조금 더 안건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부분입니다. 타 분야는 모르겠는데 연극·뮤지컬 쪽은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면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별로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전담심의제로 그분들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장르 위원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 쪽은 들어갔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직원과 장르 위원을 포함해서 전담심의제 구성인원을 조금만 더 늘리면 어떨까? 4~5명, 5~6명 정도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구성원을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구성원은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5인 이상 20인 내외로요. 규정 자체가요.

이훈경 위원 : 어제는 1+4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서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렇게 구성하는 안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규정 자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의결을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은 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지금 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런데 지금 이훈경 위원님 의견을 받자면, 지금 운영규정 개정(안)에도 “외부 인사와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외부 인사와 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이렇게 포괄 규정으로 가야 그런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규정 개정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 이훈경 위원님과 정정숙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외부 인사와 해당 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어제저녁의 논의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어제 얘기의 골자는 위원은 외부의 전담위원을 선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실제로 심의는 직원과 선정된 외부 심의위원이 심의하고 위원은 나중에 평가와 모니터링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어제는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죠.

정갑영 위원 :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위원이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어제의 얘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이훈경 위원 : 어제는 논의가 되었던 것 아닌가요?

정정숙 위원 : 그게 아니라 어제 사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것도 위원을 여기에 넣어 놓으면 위원이 반드시 심의한다,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 가능성도 열어놓는 건데요. 여기에 만일 위원이 안 들어가면 혹시 1건이라도 위원이 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열어놓자는 차원에서 ‘해당위원’이라는 표현도 너무 협소하고요. 그냥 ‘위원’이라고 하면 어떤 위원이든지 만일에 관심이 있어서 꼭 평가에 들여다보고 싶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및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거죠.

정갑영 위원 : 그런데 행정은 통일성이 있어야지 어떤 분야는 위원이 들어가고 어떤 분야는 위원이 안 들어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유가 구구절절하게 있어야 해요. “왜 그 분야는 위원이 들어가야 하나?”, “왜 이 분야는 안 들어가야 하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아니면 아니고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는 왜 5명인데 여기만 4명이냐?”를 가지고 계속 해서 꼬투리를 잡잖아요. 숫자만 가지고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느 장르는 우리 위원이 들어가고 어느 장르는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문제는 일파만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들이 모두 동의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위원님 의결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조금 더 논의의 대상으로 오늘 의결하지 말까요?

서승미 위원 : 지금 심의는 아직도 안 끝난 거잖아요? 내용은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어떤 내용이에요?

서승미 위원 : 지금 심의에 대한 것은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전담심의관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그 전담심의관으로 어제 논의된 과정에서 직원이 전담심의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들 동의해 주셨습시다만, '전담심의위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것을 갈 것이냐? 그리고 기존의 풀에서 할 것이냐?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느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시다만, 지금 이훈경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대로 "위원도 여기에 넣자."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의결을 못 합니다.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승미 위원 : 그것은 조금 더 뒤에 보거나, 아니면 현행에서 '심의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이렇게 '내'자를 하나 붙여 놓으면 다 포괄할 수 있지 않나요? '내·외부 인사'.

정갑영 위원 : 아니요.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이 심의위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전담심의제도에 위원이 포함되냐 안 되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관해서 분명한 합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이것은 전담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어제 전담심의를 별개의 건으로 하는 걸까요?

정정숙 위원 : 그렇죠. 제도죠. 그래서 저는 왜 여기에 '위원'을 넣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어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평회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진행하고 나서 위원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합평회도 하고요. 그러면서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전담심의 시스템에 의해서 했는데 제대로 되었는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피드백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합평회 같은 것도 좋다. 제가 볼 때 합평회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 참석하려면 위원이 어디에선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 놓아야 합평회에 위원이 참석해서 발언해도 심의위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이 되는 것이지 그냥 위원회의 의견은 참고만 할 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서승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외부'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가능성 있는 규정이 되는 것이죠. 굳이 '해당위원'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배은주 위원 : 제 의견은 공모 심의에서 심의위원회는 결국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 위원들이 들어가서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무게가 깊은 얘기고요. 별도로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사실 잃는 게 조금 더 많고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에 참여하던 심의 이후에 참여하던 결국 심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예술위원회에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구성원인데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개정(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처 직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행은 없고 이게 들어가야지 이후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고친다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심사를 직접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차피 어제도 나왔던 말씀들 중에 결국 책임은 현장 위원들한테, 담당위원들한테 보통 현장에서 물어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 책임을 저희가 안고 움직이려면 심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심사에 들어가서 어떤 서류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모니터링을 갔을 때 이런 서류로 공연이 이렇게 진행되었고 사후에 이렇게 진행되었으니 합평회 때 모니터링에 의한 어떤 의견이라도 낼 수가 있고요. 그런 것을 하자는 거지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냉정한 시

선으로 보고 싶다는 겁니다.

배은주 위원 : 저는 그게 심의의 개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훈경 위원 : 아니요. 심의 자리에서 어떤 의사 표현이나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아도 되니 심의에 들어가서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심의에 들어간다는 표현의 문제인데요.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정갑영 위원 :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심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어차피 어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던 사안은 이 사안대로 결정하고 지금 논의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심사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포함한 전담심의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다시 논의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바뀌야 할 부분들은, 선발해 놓은 전담심의관들을 지금부터 활용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1039호 2024-202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주연 기획조정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안건번호 1039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 일정은 어제 워크숍 과정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의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논의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인 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렸을 때 1월 말까지 5개년치의 중기사업계획(안)을 작성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기사업계획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5개년 동안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을 잔뜩 집어넣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책자 하나를 드렸는데요. 중기사업계획(안)이라는 하얀 책자를 보시면 양도 많고 내용도 많고 도대체 이렇게 예산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분량의 사업은 문체부와 예술위원회의 정책 방향성에 맞춰서 향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는 것을 잔뜩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향성을 기반으로 어제 일정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본예산 작업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사업계획(안)을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방향성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예산 작업 때 위원님들의 힘과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존 사업들에 대한 정비 등 의견을 주셔서 2025년도 예산이 잘 넘어가고 필요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의 3페이지를 먼저 봐주십시오.

3페이지를 보시면 중기지출계획이라고 지출계획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2024년도 예산이 5,798억으로 되어 있고 2025년도 예산이 7,000억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예진흥기금으로 편성되는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예기금의 맨 끝에 보시면 예산중에서 지출하지 않고 운영관리되는 내부 부분도 다 들어가 있고 기금운영비, 저희 인건비나 시설운영과 같은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으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가지가 있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창의적 문화정책구현', '예술의 지능 및 생활화·산업화' 그리고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3가지가 각각의 별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단위별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보고를 드린 예산은 들어서서 아시겠지만,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에 들어가 있는 전통문화진흥이나 국제문화교류사업 그리고 예술의 지능 및 생활화·산업화에 들어가 있는 시각예술 진흥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관광기금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을 사실 그쪽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 쪽에서 받아서 집행해 주고 있는 사업들 3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예술의 창작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2024년 예산이 총 4,085억 규모고요. 2025년에 중기로 증액을 요청한 금액이 5,806억 원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액수를 얘기할 일도 아닌데요. 방향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기적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액수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가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어떤 방향을 중점으로 두고 중기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쪽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죠. 숫자를 백날 얘기하면 뭐해요. 되지도 않는 것어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지금 사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 자료 40페이지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올해 예산 대비 2025년 이후 2028년까지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 요청을 드렸고요. 2번부터 주요 증액 방향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현재 예술위원회의 사업 주요 방향이 기초예술의 창제작 지원강화. 저희 본연의 역할에 핵심을 두고 있고 그동안 향유 예산이 너무 증액되었던 것에 비해서 창제작 예산의 증액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액이 적었던 이 부분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창작육성, 시각예술창작육성 그리고 공연예술창작육성에 각각 44억, 191억, 249억 증액을 요청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정부 방향성도 고려해서 저희 사업에 따른 창작사례비 단가 등을 증액시키는 부분들이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따른 간접지원, 사후지원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액 다건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지역문화재단 쪽으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지역문화재단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저희는 정말 우수한 예술을 지원할 수 있게 사후지원 부분을 펠로우십 지원. 문학과 시각예술 분야의 펠로우십 지원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연예술 같은 부분은 1차 창제작 지원을 하고 이어서 그 공연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레퍼토리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시각예술 분야와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레퍼토리 증액 예산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육성 부분에서는 기존에 기관의 극장이라든가 이번에 학전을 저희가 대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접지원으로 해서 지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예술교류지원 같은 경우 한국의 예술인들이 저희 국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창작공간활성화 같은 경우는 아까 문학지원사업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올해 시범으로 시행된 이후 내년에는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창작공간활성화 예산 100억에 추가로 100억을 증액해서 200억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문학활성화센터나 인바운드리드업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초예술지역공동육성'이라고 하여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 부분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고요. 또한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고 하여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전담심의관제 운영이나 예술인

마이데이터를 통합 플랫폼에 반영해서 예술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별도로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1인당 1만 원 정도 증액시키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략 42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43페이지부터 표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주요 증감 부분이 어떤 사업을 증액시키거나 신규로 추가하겠다는 부분이 43페이지와 44페이지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끝나셨나요?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보고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공연예술창작육성에서 신규 사업으로 공연예술레퍼토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떤 건가요? 레퍼토리 사업은 지금 공공복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과의 차별성이 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K-클래식은 새로운 사업인데 K-클래식 해외진출 사업비가 잡혀 있잖아요. 43페이지를 보면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그러니까 우리 예술위원회가 국가 지원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 꼭 해야만 되는 사업. 그리고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또 뛰어난 사업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공연예술레퍼토리지원 사업은 별도 책자의 49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산실 레퍼토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예술위원회 기존 사업들은 기존에 창제작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신작을 제작하고 창작하는 부분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작품이 창제작이 된다고 해서 공연예술 시장에 안착이 되고 만들어진 작품이 계속 공연되는 것이 아닌데 잘 만들어진 작품들이 유통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로 많은 빌드업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빌드업 과정까지도 지원해서 잘 만들어진 작품들이 나중에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레퍼토리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클래식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63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한국에, 특히 저희 음악 부분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장르지원 사업의 특색이 그렇지만 창제작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연자에 대한 지원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세계 여러 콩쿠르에서 수상을 하면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아티스트들도 수상으로 끝나고 그다음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에 도달한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 플랫폼과 제휴를 해서 그 아티스트들이 세계 플랫폼, 예를 들어서 6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저희가 사례를 들어냈는데요. 그런 세계 유수의 국제페스티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과 협력을 맺어서 아티스트들이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 유학 중인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학기간 동안 해외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투여하면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외에 있는 한국 문화원이나 코리아파운데이션과 협력해서 해외에서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장르 이기주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만, 이것은 정말 전통예술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무용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꼭 K-클래식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통예술과 무용 장르를 다 대입해도 맞거

든요. 정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페스티벌에서도 전통예술 쪽에서 사실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전통예술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파이가 이쪽저쪽에 있다는 이유로 적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저는 한 말씀만 딱 하고 멈추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2025년 본예산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제언인데요. 이것은 지금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이잖아요. 반드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보면 그냥 사업에 대한 아이템 나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 단위의 계획을 짤 때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상태가 장르나 예술 전제로 봐서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할 점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논리적 백그라운드인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중기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서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되면 그냥 사업을 나열하고 각 부서마다 사업을 받아서 모아놓은 것에 불과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그런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정책역량의 강화와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기계획이나 중기발전방안을 할 때 정책안이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정숙 위원 : 예. 저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데요. 사실 위원회에서 그게 없는 것은 아니죠. 중기전략도 있고 비전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것 자체는 사업계획이니까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비전과 전략 부분만 좀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저희가 자료 작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40페이지에 간단하게 넣어놨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전 전략과 연계해서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그리고 이왕이면 전략 이야기를 할 때 중기니까 로드맵도 연차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페이지 1장 정도로, 지난번에 2024년 계획을 1장으로 해 주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로드맵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거기에 포함해서 중기사업계획을 매년 짜잖아요. 지난해에 짰던 게 올해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구성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1회성으로 끝나고 의례적으로 내라고 하니까 내는 형식이 되니까 우리가 뭘 집중하고 끝까지 팔로업 하면서 꼭 관철시켜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책혁신부에서 만든 우리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중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중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한다. 어디에 중점을 둔다고 하고 그다음부터 예산편성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내년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5월까지의 우리가 마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중기전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를 정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꼭 확보해야 할 예산은 어떠한 부분이라는 부분들과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어떤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반영된 안을 짤 수 있도록 해 보시죠.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주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회의자료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회의자료 41쪽에 '공연예술창작육성지원 단가상향'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2024년에 1억 8,000만 원이고 2025년에는 9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놓은 책자가 나눠주신 중기사업계획 자료의 54쪽인 것 같거든요. 54쪽을 보시면 지원단가가 2022년에서 2024년에는 1억에서 2억이지만 2025년에서 2027년이 되면서 2억에서 5억으로 늘고 결과적으로는 96억이 되는데 뭔가 수치가 안 맞아서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조금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별도자료 책자의 54쪽을 보시면 현재 2024년도에는 예산이 66억 2,4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중장기창작지원 사업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창작지원 예산이 66억으로 잡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원단가 기준 상향에 따른 증액분이 33억으로 해서 총 100억 부분의 중장기창작지원 단가확대고요. 그리고 공연예술창작육성 부분에, 본 자료 41페이지에 공연예술창작산실 단가확대 부분은 별첨자료 46페이지부터 보시면 공연예술창작산실 단가확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2024년도에 142억 정도의 규모인 것을 19억 정도 지원단가를 증액시켜서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 공연예술창작육성의 단가는, 예를 들어 창작산실이나 중장기 등을 다 합한 단가증액 부분을 더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수치가 의미 없습니다. 수치가 전혀 의미가 없고 의지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목표치를 놓고 대략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5개년 동안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주 위원 : 물론 희망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역으로 우리의 미션이 뭔가를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증액이잖아요. 그런데 건수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4쪽 중장기사업계획 자료를 보면 건수는 줄었는데 지원액은 엄청나게 느니까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구나. 우리의 중장기 목표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 방향은 맞습니다.

장인주 위원 : 맞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예.

장인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 안건입니다. 보고안건은 총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7차 회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예. 경영전략개선 소위는 1월에 줌을 통해서 2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은 아르고 50주년 기념 정책연구라는 게 있는데요. 곧 나오겠죠. 내부에서 공유하는 그런 정책연구 부분을 한번 검토하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51쪽에 보시는 문화예술위원회 정책적 기능 강화 방안 연구 검토로 이것도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한 겁니다. 두 번째 보고와 맞물려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두 번째 것은 위원회 내부에 연구자들이 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안건을 보면, 여기 안건 요약에는 향유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향수냐? 향유냐? 이런 개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시켜 놓은 개념이 아니라 많이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 문화 정책에서도요. 향유라는 개념을 적극적 소비자, 창작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적극적 소비자를 발굴해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게 어떠한 개념으로 개념을 설정해서, 이게 되면 예를 들어 통합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소비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작을 준비할 역량을 갖춘 소비자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통합이용권 사업도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아르고비전과 전략을 재설정할 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어떤 전략체계와 구조를 만들면 어떠한 하나의 안이었습시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 정책적 기능 강화 연구는 우리 조직개편 얘기와도 맞물려 있어서 그때 얘기를 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조직개편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원회가 보다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적으로 마인드를 갖는 위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능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단순히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서 정책의 방향과 이해를 토대로 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무처의 향후 방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개선 소위원회 8차 회의 결과보고에 대해서도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두 건을 같이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2개 안건을 동시에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의결된 것으로 같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체회의 및 워크숍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2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과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심의제에 대해서 또 다시 논의를 해 보기로 했는데 그 일정은 23일 오전 10시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정숙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7기 말에 들어와서 8기까지 활동하고 있는 3명은 위촉장을 받을 때 2월 21일까지라고 임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회의에는 안 나와도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후임자가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후임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추후 결정이 되는 시점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문화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협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러니까 임명장을 받아야 그때부터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대략 예전에도 보면 두 달 정도가 걸렸잖아요.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세 분께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임주연 기획조정부장 : 오늘 회의가 잡혀 있어서 문체부에 한 번 확인은 했는데요.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상 두 달 정도 일정이 걸리는데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모집공고조차 뜨지 않은 상황이라 문체부에서는 3월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3월까지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참석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훈경 위원 : 며칠 전에 송시경 처장님께 확인한 내용인데요. 논의까지는 아니라도 이야기는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미투 사건들이 잠잠해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문화재단 측의 쿼드극장에서 작품 하나가 선정되었는데 명단 제출되지 않았고 그 안에 블랙리스트 관련 인물이 들어가 있어 연극계에서 한바탕 시끄러웠던 사건이 아직까지..

정병국 위원장 : 미투죠?

이훈경 위원 : 예, 미투죠. 맞아요. 정정합니다. 미투입니다. 그게 봉합이 안 된 인물이 명단 안에 들어가고, 공연이 다 선정된 이후에 명단이 공개되면서 현장에서 한번 시끄러웠고 아직 봉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얼마 전에 문예위 예술기록원에서 자료가 하나 오픈되었는데 역시 관련 인물이 포함된 극단의 자료가 기록원에서 게시되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다시 기록물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건을 예시로 들은 이유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서 중간에서 더블체크를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오픈되었다가 수습한다고 허겁지겁 내리고 뭔가 뒷수습하는 게 큰 파장이 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체크할 수 있으면 이게 공개되기 전에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록원의 기록물까지 그러한 문제로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역사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잘못된 역사도 역사고 잘된 역사도 역사

고요. 그 기록은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볼 사람들은 보고 안 보고, 평가할 때도 그 자료는 팩트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모든 안 좋은 역사를 다 지워야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제고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답합니다.

이훈경 위원 : 기록이 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어떤 기록물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훈경 위원 : 아니요. 기록물을 보관하는 것은 괜찮은데 공공연하게 SNS를 통해서 오픈이 되어 버리면.

정병국 위원장 : 아니, 오픈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록원에 어떠한 기록이 있다. 활용할 사람은 활용하라고 고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채록을 한다거나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어떤 기록물이 있다는 것을 계속 공고해 주거든요. 공고를 했던 절차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왜 했느냐?”라고 하면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거나 뭘 한다고 할 때 그 자체를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엄연한 역사인데요. 그냥 기록인데요. 그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기록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정정숙 위원 : 위원장님, 이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모두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계속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회의가 마무리되면 소위원회 얘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훈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TF나 소위원회 등 이 얘기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회의 종료)